

장성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총력'

내달 가족행복센터 개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순조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청소년 수당 지급 등 교육 지원도



장성군이 사람이 모여드는 장성,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장성읍 영천로 소재 가족행복센터가 그 시작점을 알린다.

가족행복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다 면적 2천97㎡(900평) 규모로 읍시가지에 위치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지하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을 갖춰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2층은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지기관이 들어서서



장성군이 민선 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김한중 장성군수가 올해 장성군에서 태어난 첫 셋째아인 이도윤 군을 안고 있는 모습(왼쪽)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조감도. <장성군 제공>

자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상무대 아파트와 가까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또한 지상 2층 규모의 커뮤니티홀,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

습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 계획이다. 북부지역 보육 공백을 해결해 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도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백양사역 인근에 바다 면적 3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장성공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장성공원 자연 생태 놀이터가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장성 최초의 사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장성군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추진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일조한다. ▲전남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문명여장성'의 전통도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장성군은 교육청, 산업체 등과 힘을 모아 지역돌봄책임제 시행,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문무(文武) 특화인재 육성계획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적극적인 인구·돌봄 정책추진으로 지방소멸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 남산공원, '문화·여가·휴식' 공간 재탄생

30억 투입 리모델링...야간경관 11월 완료 예정

화순군은 "최근 문화·여가·휴식을 아우르는 군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남산공원 조경공사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군민 모두가 사계절·주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편히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군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다.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심혈을 기울인 남산공원에 산림청 도시열선완화 공모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산책로와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키가 큰 나무를 옮겨 심어 녹음이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정원과 물 정원, 가을 그라스정원, 겨울 자작나무원으로 테마공간을 조성했다. 화순 남산공원은 3월에 꽃을 피우는 목련을 시작으로 4·5월에는 서부해당화과 조팝, 5·6월은 이팝나무, 불두화가 공원을 향형색을 물들이고 6·7월 수국꽃이 만개하면서 공원 풍경은 절정을 이룬다. 이어 9월부터는 은목서와 동목서 꽃향기로 공원을 가득

채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남산공원에 들어서면 수국정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약 5천㎡의 면적에 조성된 수국정원에는 목수국, 산수국, 야나벨수국 등 15종 약 2만 본을 심어 수국 꽃물결이 흘러내리는 듯한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국의 성장 환경, 꽃의 모양과 색깔, 개화 시기 등 특징을 고려해 조성한 3곳의 수국정원에는 트릴리스, 포도존,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아침부터 밤까지 펼쳐지는 그림같은 수국정원에서 여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화순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국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공연 등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후대까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숲으로 조성했다"며 "전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키워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경공사를 마친 남산공원은 추가로 야간경관 공사를 1, 2차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8월 초에 착공해 늦어도 11월께 밤이 아름다운 '빛공원'으로 탈바꿈한 남산공원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군이 최근 문화·여가·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남산공원 조경공사를 마쳤다. 사진은 남산공원 수국정원(왼쪽)과 물정원.



화순군이 최근 문화·여가·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남산공원 조경공사를 마쳤다. 사진은 남산공원 수국정원(왼쪽)과 물정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 인상 차액 지원"

이병노 담양군수, 추석 대비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담양군은 3일 "지난 1일 이병노 담양군수가 이른 오전 담양읍 만성리에 있는 담양가축시장을 방문해 한우 가격 동향 및 한우 경매 진행 상황을 살펴

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최현동 군의원, 강종문 담양축협

협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467마리의 한우가 경매됐다.

이 군수는 한우농가와의 간담회에서 "사료값 인상과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이차 차액 지원과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 인상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축산업을 위한 한우 개량 관련 사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가축시장은 1994년 10월 첫 경매를 시작으로 주 1회(매주 일요일)에 전국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한우가 회당 평균 300두 거래된다.

담양가축시장은 전자 경매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만2천여마리의 한우 거래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7인 선정

우주발사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조성 기간 1년 단축

고흥군은 "최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7명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예타 면제 추진에 기여한 우주항공추진단 류상훈 팀장, 오대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예타 면제는 지난 3월 국토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15개 산단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산단 조성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이상 단축됐다. 2025년에는 산단 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는 국가산단 조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재무과 김요한 주무관 ▲경로당의 지출 보충료를 절감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점면면신은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고흥=최봉환 기자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추진

내년 준공 목표...초고령사회 대비

순천시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추진에 나섰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서면 선령리 719번지 일대에 북부노인복지타운을 건립,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선다. 이중 노인요양 시설은 요양보호 22명, 단기보호 20명으로 총 112명 수용 규모로 건립되며 주로 치매전담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함에 따라 시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해 국비 지

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순천시는 원활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 부지 내 시민들에게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사항 등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 7월 말 기준 순천시 노인인구 수는 5만2천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며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만전을 기해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일류도시 순천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정기 기자

포스코, 韓-호주 경제협력 강화 이끈다

장인화 회장, 한-호주 경제협력위 합동회의서 협력 방안 논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호주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등 5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이 지난 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한국을 대표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 <사진>

지난 1979년에 시작해 올해 45회째를 맞이한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는 한국 대표로 한-호 협회(KABC) 위원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심승섭 신임 호주 주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호주에서는 마틴 퍼거슨(Martin Ferguson) 호-한 경협위(AKBC) 위원장, 돈 패럴(Don Farrell) 연방 통상·관광 장관,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총리,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가 KAFTA와 함께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깊이 일조해 온 것에 대해 양국 정부 및 경제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미를 더했다. 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는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협력력을 넘어 이제 친환경 소재 및 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청정 미래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며 "양국이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함께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합동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및 스타트업, 방산/항공우주, 식품 및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장 회장은 3·4일 양일간 돈 패럴 연방 통상관광장관, 매들린 킴 연방 장관, 돈 패럴(Don Farrell) 연방 통상·관광 장관, 로저 쿡 서호주 총리 등 호주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 최고경영층과 잇달아 면담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에 강화한다. 4일에는 호주 원로 파트너사인 로이힐(Roy Hill)과 공동 후원해 건립한 '한국 전 참전용사 추모공원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양=양홍열 기자

여수해수청,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개최

9-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오는 24일 2024년 제5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객선은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적성심사는 승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직무 능력 및 위기 대응 역량 등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로, 적성심사에 합격해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65세 이상 2년)이며, 적성심사에서 3회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1년간 재응시를 할 수 없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참고자료는 여수해수청 민원실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공문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거나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서 작성한 후 증명사진을 붙여 제출하면 된다. /여수=김진선 기자